

이달 사적모임 8명 조정

군산시, 계속 되는 유행확산 방지·오미크론 변이 대응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4주 동안 사적모임인원이 8명으로 조정된다. 지난 3일 김임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4주동안 접촉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임 인원을 8인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접촉여부 관계없이 수도권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조정했다

이번 제한은 6일부터 4주간 실시되며 1주일 간 계도기간을 설정, 유행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예정이다. 또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



시민이 함께하는 차립도시 군산

패스가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군산=한영봉 기자

방역패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범위(현행 18세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8주)을 부여 후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강 시장은 "일상회복 2차 개편은 유보하고 고령층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 접종에 주력해 본격적인 접종효과가 나타나는 4주간 의료 방역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방역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12월 한달 간 모임자제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3일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시설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31개소 2,000명 아동을 대상으로 친환경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값진 체험을 원아들과 함께”

군산시, 공공급식과 함께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

군산시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3일 은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시설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31개소 2,000명 아동을 대상으로 친환경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통해 공급되는 군산 친환경(우수)농산물 및 지역농품을 활용한 체험행사다. 은평구 소재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김장체험 키트를 제공해 어린이와 학부모가 같이 직접 김장을 담가 전통식품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고 김장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식생활 교육 및 체험을 실시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도농 협력을 통해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공급하는 직거래 유통체계를 위해 마련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서울 은평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현재 은평구 소재 143개 공공급식 시설에 군산 친환경(우수)농산물과 지역농품을 공급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고 체험을 통해 겨울 나기 김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보람된 행사였다”며 “값진 체험을 원아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각 기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채상원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김치는 우리 밥상에 꼭 오르는 전통 음식이지만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낮아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김치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편식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전통음식과 친해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전했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보육”이라고 밝혔다.

/군산=한영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범죄예방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익산시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들이 높게 평가받아 대한민국 대표 범죄 예방도시로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3일 서울 중앙일보 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여성·청소년 부문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중앙일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치안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상으로 매년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온 공공기관·사회단체·기업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시스템 확충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청소년 부문 우수 공공기관에 선정됐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어르신 장수비결 구강보건교육 인기

익산시 보건소가 운영 중인 경로당 구강보건교육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8개 경로당 2,35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실시와 구강위생용품을 배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경로당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틀니 여부에 따라 개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배부했다. 구강건강 관리에 필요한 리플릿 배부와 무료 노인불소도포·스켈링사업을 홍보해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웠다.

특히 이번프로그램은 노년기 대표 구강질환인 치주병과 구강건조증, 치근우식이 구강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노화, 전신질환, 복용 중인 약물 등에 의해 발생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치아를 상실 위험이 큰 점을 감안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통해 식사 후의 잠자기 전에 꼼꼼한 양치질과 구강위생 보조용품으로 치주관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익산=이득훈 기자

‘20년 숙원’ 익산 신청사 첫 삽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 2024년 11월 완공 예정

익산시가 시민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목표로 고품격 신청사 조성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 3일 오후 4시경 현 청사 뒤편 주차장에서 신청사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김수홍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공사 추진을 기원했다.

기공식은 시립예술단의 안전지원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식선언 및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기공식 무대 중앙 LED

전광판에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한 일반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행사로 진행했다.

특히 펜싱국가대표 권영준, 프로골퍼 박현경, 트로트가수 최항과 가수 홍시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며 익산을 빛내는 익산시 홍보대사들이 영상 메시지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또한 어린이, 대학생, 다문화 가족, 소상공인, 마을 주민 등 50여명의 일반 시민들이 희망을 담은 시청사 축하인사를 영상으로 전달했다.

익산시 청사 신축은 1970년 현재 부지에 청사가 들어선 지 50여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익산 신청사는 백제 역사와 문화,

여가 기능이 어우러진 열린 청사로 건립된다.

신청사는 총 사업비 948억원으로 연면적 4만2,34㎡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시청사와 시의회청사가 연결해 건립된다. 주요시설로 업무공간, 다목적홀, 어울림마당, 시민홀, 시민교육장 및 회의실,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36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4년 11월 완공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공사 착수를 알리는 기념비적인 날이다”라며 “시민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청사’를 목표로 고품격 시청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의회 상임위, 2022년도 본예산 1조4555억 중 63억여원 삭감

군산시의회(의장 정경수)가 위원회별 예산심사파정을 거쳐 군산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에서 63억 1466만 원을 삭감했다.

시의회 2개 상임위는 지난날 26일부터 7일 동안 군산시가 상정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예산심의를 거쳐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 4,555억 8500만 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한 63억 1466만 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는 ▲열린시장 열린군산 발행 1억천원 중 2천만원(공보담당관) ▲독일 맥주축제

참관 970만원 전액삭감(기획예산과) ▲구단운영(지도자수당 및 출전경비 등) 지원 4천만원 전액삭감(체육진흥과) ▲길모퉁이 복지안내 고보조명 설치사업 1200만원 전액삭감(복지정책과) 등 4개 사업예산 8170만 원을 삭감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에서 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출연금) 695400만원 중 4억 5055만원(소상공인지원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6억 원 중 5억 원(도시재생과) ▲금강하구 연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5억 원 전액 삭감(항만해양과) ▲해나지오삼거리 인근 도로개설공사 2억 원 전액삭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1억 3500

만 원 전액삭감 ▲군산푸드생활문화나눔터 16억 원 전액삭감(먹거리정책과) 등 48개 사업예산 62억 3296만 원을 삭감했다.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과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일차리 창출과 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었음을 뿐 아니라 사업의 본 취지와 목적, 효과 등을 꼼꼼히 살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살펴 열세가 한 뿐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했다.”고 말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금란도 해상매립지 항만재개발 사업 본격 추진

군산시가 근대문화유산, 고군산군도, 새만금과 연계해 통해 친환경 해양관광지로 개발을 추진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는 금란도를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근대문화유산, 고군산군도, 새만금과의 연계해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및 인근지역과의 화합을 통해 친환경 해양관광지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에 체결한 ‘군산·서천 지역상생협력기본협약’에 따라 해수부 주도로 금란도·정항항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

이다.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계획으로 금란도·정항항 항만재개발 관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간 상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금란도·정항항 항만재개발 관련 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대표·전문가 등의 자문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상생협의체도 갖출 예정이다. 시는 현재 금란도 사업발굴을 위해 사전군과 공동으로 금강하구 그랜드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한영봉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